2026 시민사회 현장지식 컨퍼런스: 현장은 어떻게 현장이 되는가?

남태령, 현장을 현장으로 만드는 방법들

[여는 세션] 기조사례발표 2. 어떤 힘과 경로로 그 현장에 들어가고 응답하게 되었는가?

#휩쓸림 #협력 #남태령 #광장으로

최별(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 석사/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휩쓸림:
홍수에 휩쓸리는 / 사랑에 빠지는

주체/현장의 상호형성과 공동이동

“우리에게는 현장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남태령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낭만화’가 아닌 ‘단순화’가 아닌가?

커뮤니티에 기반한 훈련과 비판적 입장–정치적 욕망과 상상–집합적 사회운동과 직접적 협업



‘나’의 남태령 현장 연구활동

1. 자리없음을 통한 자리 만들기
2. 동질적 고향을 떠난 이질적 생태계 속에서 나의 정치를 확인하고 확장된 몸 만들기

- 사람들은 남태령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 개인/집단은 남태령이라는 말로 무엇을 표현하는가
- 나는 무엇을 원하며 누구와 함께 이를 주장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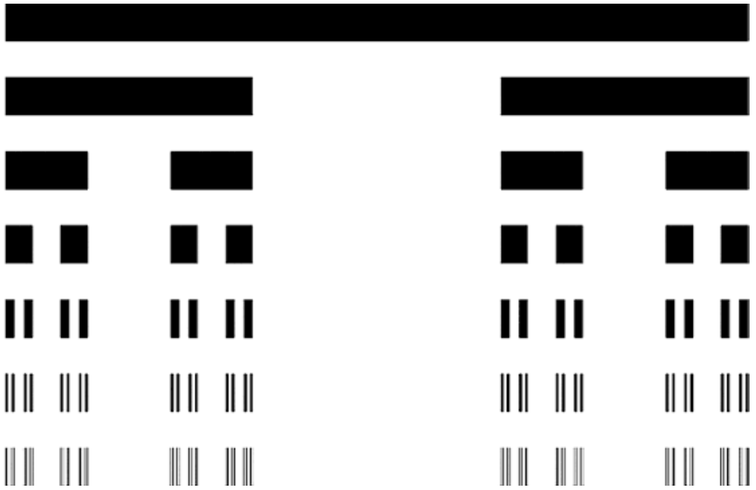
확장하며 선명해지는 몸-커뮤니티

급진적 커뮤니티와 이어진 나의 감각과 감정을 정치적 기관으로 활성화. 사회운동의 네트워크를 유영하며 기존 체제와 다른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미래 정치의 경로를 설치. 이질적인 영역에서 연결되는 문제의식을 길러온 동지들과 만나기.

남태령이라는 분기점 전후, 현장이라고 불리는 복수의 현장들이 존재

➡ **광장에 모인 '평범한 시민들'의 내력을 이로부터 분리해 축소하지 않기**
➡ **운동/활동/투쟁/연구/노동/일상/역사/기억/친밀성/문화의 면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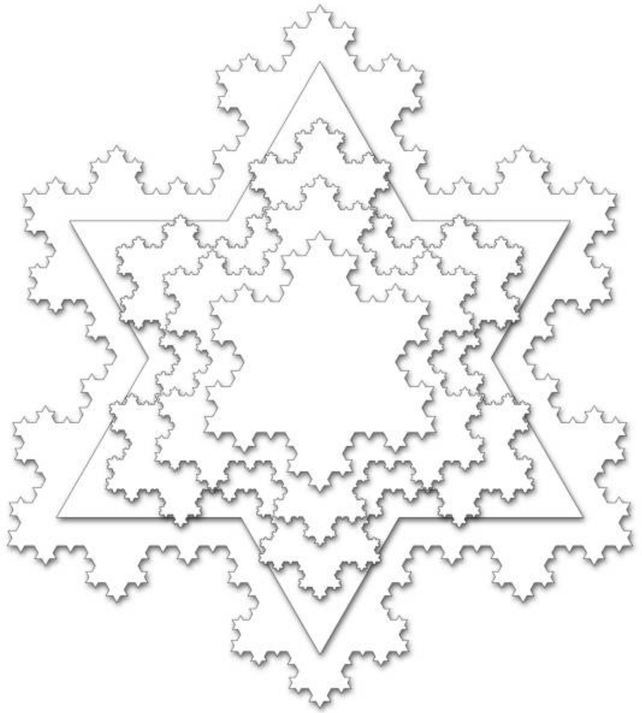
정체성 자기소개: 어디로부터 와서 함께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로 듣기



프랙탈 Fractal

부분적인 연결들 Partial Connections

Marilyn Strathern 1991





새로운 사회운동을 모색하는 데 있어 사회운동 자체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과 접합해 온 방식 자체를 충분히 비틀어볼 필요. 이러한 제안에 대한 하나의 명명이자 이를 실현해 나가는 실천적 도구로서 '남태령'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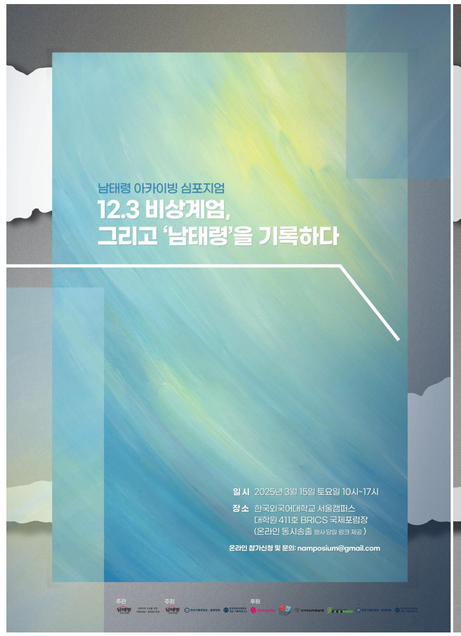
: 페미니스트의 남태령 현장 만들기 + 남태령 동지들의 우산이 될 수 있는 현장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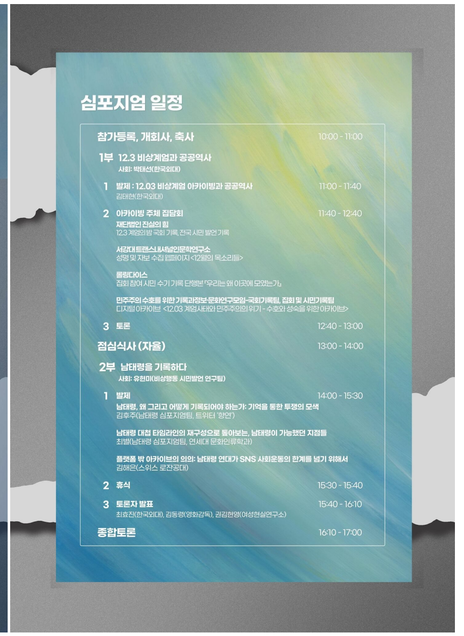
= 메타 투쟁의 기획.

- 남태령 심포지엄/아카이빙 팀
남태령 연구자 집담회,
아카이빙 단위 네트워킹
아카이빙 심포지엄 개최
원고 발표

- 남태령 책모임
- 남태령 1주년 기념행사 〈남태령 첫돌〉

-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운영 조직 구조 만들기, 팀 운영, 홈페이지/SNS, 홍보, 회계
온오프 커뮤니티 만들기, 접주대회,
연대 네트워킹, 답사, 인터뷰,
집회/문화제, 세종호텔/지혜복 농성장 경찰 연행 연대,
화물연대 열사투쟁 모금 전달 및 발언,
택시지부 고공농성 문화제, 농협 투쟁 연대, 2026 여성파업,
제주 4.3, 자연그대로농민장터,
광주 오월미술제 전시 및 학술포럼, 5.18 열매 총회/방청연대/
무대인사 기수 조직, 오월민주여성회 집담회, 지구를짓다 방문,
박종철/김상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의 및 인터뷰,
상주 여성농민 농생태학 학교/언니네텃밭 농활, 전여농 청년위,
퀴퍼 부스&트럭, 다큐 〈남태령〉 상영회와 GV,
남태령 관련 논문 오픈세미나,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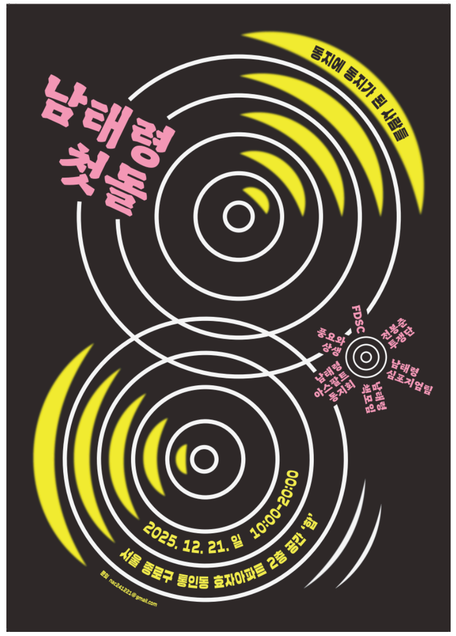


우리의 운동을 찾아서
그리고,
당신의 운동을 찾아서…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접주 大 모집



And more…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접주 大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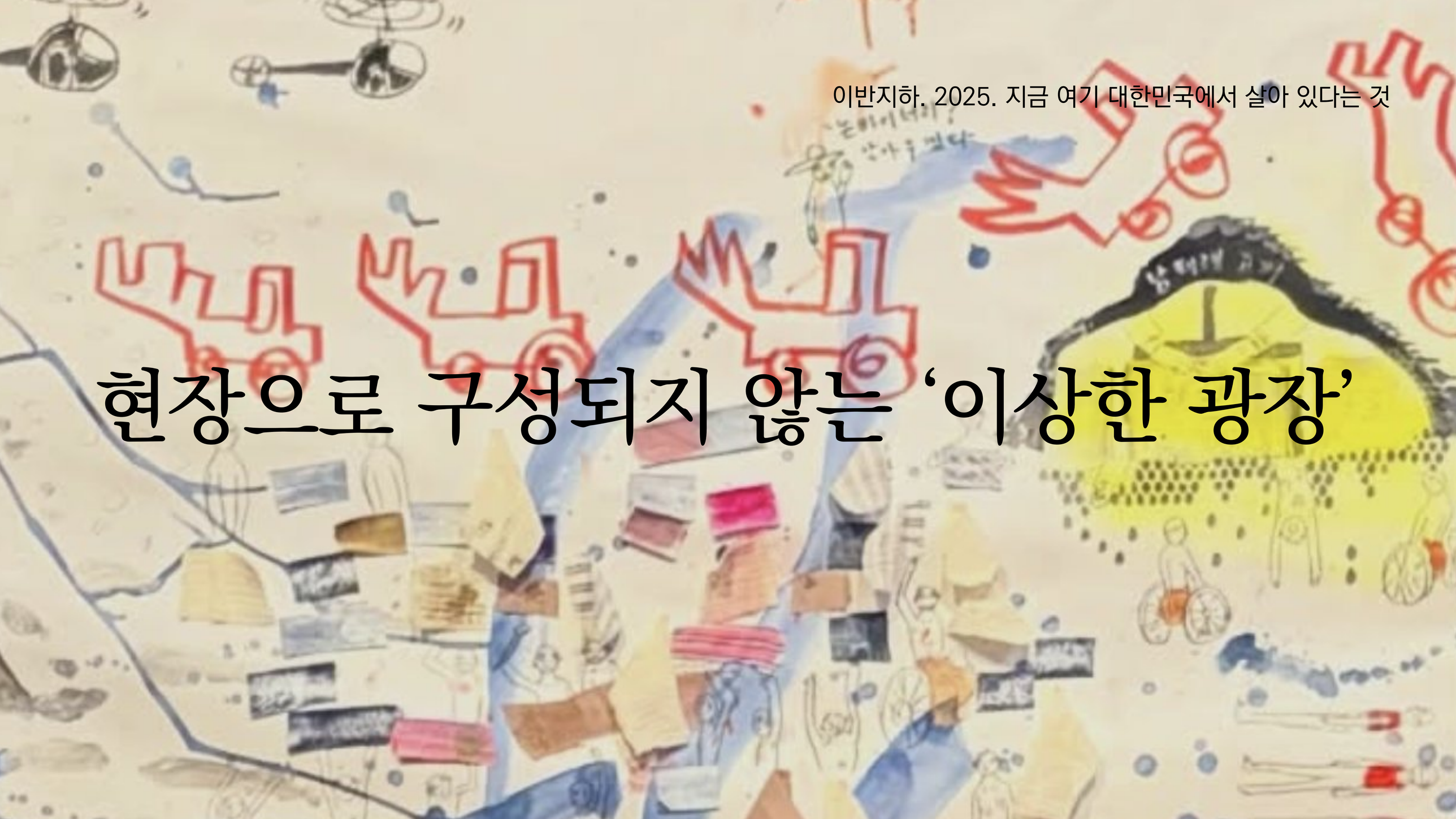
지구는 차갑게 🥶
연대는 뜨겁게 🥵



기후 아포칼립스, AI는 당신을 먹여살려주지 않는다.
당신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호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호미를, 100% 활용할 수 있습니까?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접주 大 모집





이반지하. 2025.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살아 있다는 것

현장으로 구성되지 않는 ‘이상한 광장’

마르크스주의자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 모델을 역사에 도입함으로써 이런 사고방식과 결별한다. 사유가 정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에서 진정으로 시작된다고 본다 - 우리가 자신의 역량의 한계에서 진정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는 것은 정치의 싸움 속에서, 즉 급박한 제약과 압력의 맥락 속에서다. 이런 의미에서 조직화는 연구와 분리되지 않으며, 구조적으로 끝나지 않는 배움이나 발명의 과정과도 분리되지 않는다. (...) 조직화란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공동체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람들이 어떤 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전략과 모델의 한계에 대해 배우며, 실천의 광기 속에 던져지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앤드루 펜다키스. 2024/2026. 좌파생활: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 pp. 331-332.

“집단적이고 신체화된 공부” (펜다키스)
“활동을 하면 연구를 하고 싶고, 연구를 하면 활동을 하고 싶다.”

-

물질적 움직임의 방식으로 사고하며 사유를 물질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활동.
담론 연구와 조직 활동이 분리되지 않으며 이 두 영역이 결합하는 현장에서
이론과 방법론, 문제의식과 목표 및 전략은 선후를 결정할 수 없이 상호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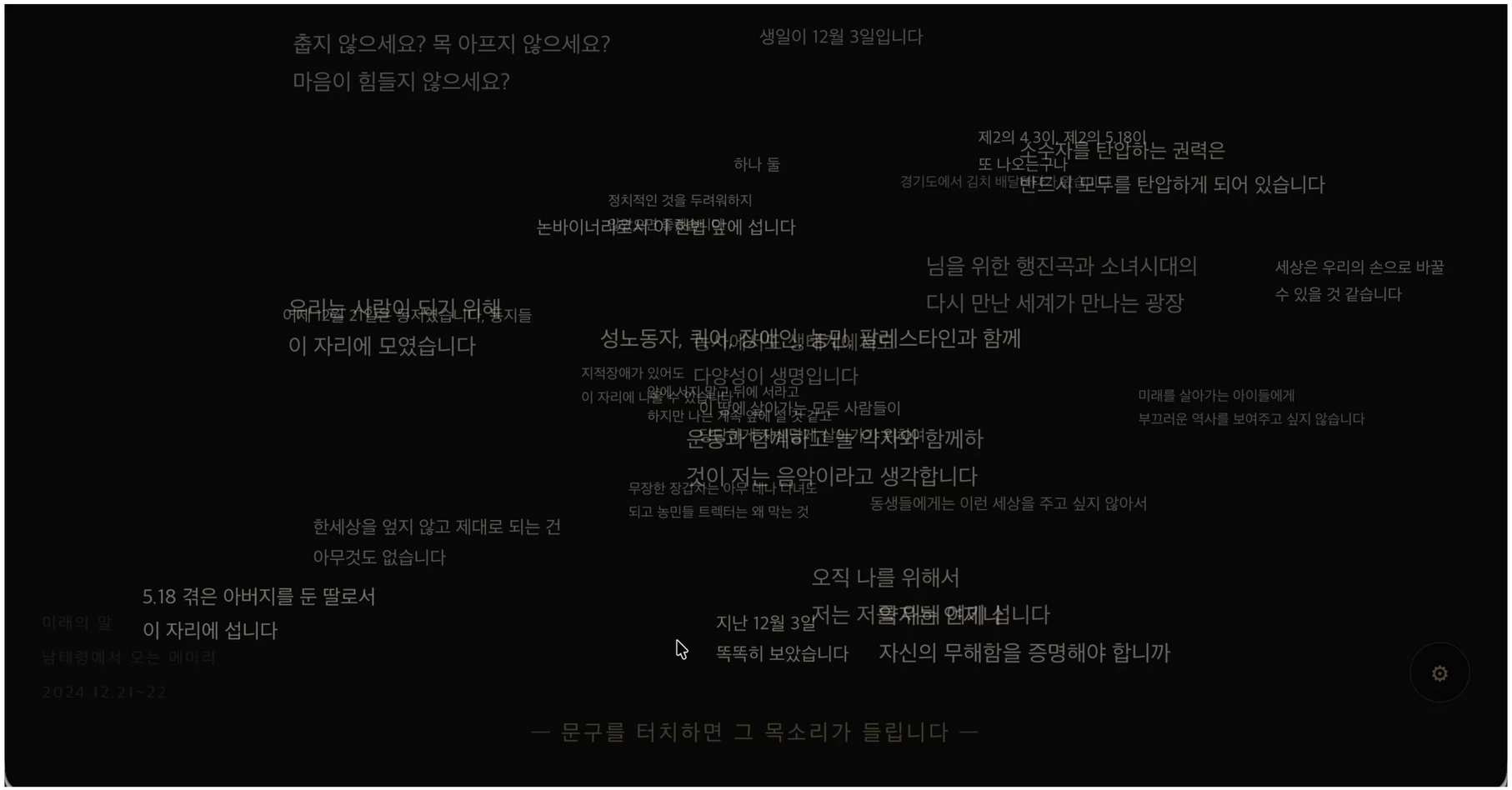
→ 그렇기 때문에 협업/노동 방식 자체의 정치화가 필수적.
왜 이렇게 하는가? 어떤 입장/훈련과 활동 목적을 전제하는가? 에 대해
의식적이어야 하며 언어화해야 한다.

각자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성장하고 어떤 훈련을 해왔는지에 따라 스스로를 내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며, 외부와 조율하고 협상하는 기술에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이 차이 자체를 조직적이고 공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활동의 기초적인 실천 영역으로 삼아야 한다.

자리/몸으로서 ‘내장 기관’이 있는 조직/커뮤니티/운동/연구에 대한 고민
‘기관 없는 몸’ → 조직화 (Jäger, Hyperpolitics, 2026)

비판의 날에 쉽게 너덜해질 만큼 성글지 않은 우정과,
우정의 천을 모질게 찢어버릴 만큼 어설프지 않은 비판으로,
따로 또 여럿인 공동체의 무늬를 짜 나가기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미래의 말: 남태령에서 오는 메아리〉, 2026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이미 도착중인 말: 남태령 파도타기〉, 2026



https://www.namtaeryeong.net/echo/

대동세상(전봉준 투쟁단), 아고라(이갑성 동지), 해방공간(피린 동지)으로서 남태령

-

남태령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중의 역사적 재생산이 더 이상 규범적 정상 가족과
합법적 임금 노동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민 주체의 형상으로 틀거리 지어질 수 없다는
인식에 대한 요청. (연혜원, 광장 비판, 2026)
다양성의 덫이나 개별화 된 성취 그리고 현장 없는 비판에 매몰되지 않는,
급진적 평등과 실질적 변혁의 유토피아적 풀뿌리 연합 정치를 포기하지 않기

-

“트랙터의 시간에서 호미의 시간으로” (정은정)

세계가 조직되고 만나며 협업하는 윤리 자체의 전환
물리적 거점 확보와 물질적/상징적 자원의 분배

모두가 래디컬한 소규모 공동체가 되기는 힘들며 조직의 규모, 목적에 따라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 따라서 나의 고민은 “좋아하는 사람들(김난이)”과 나의 둥지를 잘 짓는 동시에 외부와 잘 연결되는 방식이다.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운동과 변화는 당장의 위기를 넘어가는 방식에 국한될 수 없으며 급진적인 전환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의 대안(강나루)”은 이미 우리의 곁에 있다.







서울퀴어문화축
차별을 갈아엎자!


팔레스타인에 解放을
남태정
차별을 아엎자!


서울퀴어퍼레이드
중로구청
청계한빛광장
탑골공원
차별을 갈아엎자!
PAZAC
우리 모두가 팔레스타인이다


서울퀴어퍼레이드
天命
기후정의 Climate Justice
팔레스타인에 解放을
차별금지법 지금당장 제정하라
2026

“나의 민중은 잘못 태어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민중이다.” (프레시아도)
“집을 지어야 문을 열어둘 수 있다.” (르귄)

이제 남태령 2년차. 더 많은 공부와 필드워크, 대화가 필요.
87년 체제 이후 다가올 30년을 욕망하고 상상하는 페미니스트-퀴어-좌파의 야심/초심으로
함께 연구하고 활동하기!

